

‘녹차 수도’ 보성군,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 도약 ‘시동’

6천45억 투입...전일리에 ‘주거복합타운’
KTX 이음 개통엔 주요 도시 2시간대
콘도·골프장 등 휴양·레저 인프라 확충

보성군이 KTX 이음 시대를 앞두고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화천면 전일리 일원 49만 5천평(163만6천644㎡) 부지에 조성되는 ‘보성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타운’은 보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대전환 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 프라이빗보성㈜이 2030년까지 총 6천45억원을 투입해 정주, 휴양,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올인원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요 시설로는 단독주택 190동(2층), 휴양형 콘도미니엄 35동(8층, 1천8백실), 실내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27홀 골프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지난 1월10일, 보성군·전남도·프라이빗보성(주) 3자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재 군 관리 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TX-이음 사업이 완료되면, 보성까지 수도권·부산·광주·순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보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해양레저 도시로서 보성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울포해 양복합센터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인 울포항 ▲울포포름나드 사업과 연계돼 남해안 해



보성 화천면 전일리 일원에 조성될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타운 조감도.

〈보성군 제공〉

양관광 벨트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타운은 직접 고용 인원 150명 이상, 장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지

역 서비스 산업 확대,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은퇴 세대 귀촌 유입, 해양 레저 수요 확대, 제2주택 수요 증가 등 전국적인 정주 트렌드와 맞물려 그 급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천수 프라이빗보성(주) 회장은 “자연과 공존하는 명품 타운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 이음 개통과 함께 보성의 가치와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해양과 산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일리 일원에 주거, 휴양,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명품 주거복합타운을 조성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찾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가 최근 열린 ‘장성한상’ 한식뷔페 시식회에 참석한 가운데 장성한 식재료로 만든 맛깔스러운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자연 담은 식탁”...한식뷔페 ‘장성한상’ 개장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2층
매주 화·일 오후 3시까지 운영
흑임자치킨 등 35종 계절 메뉴

장성군이 정정 장성한 식재료로 만든 한식 요리를 ‘뷔페’로 선보인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광주시 북구 삼소로 2) 2층에서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 문을 열었다. ‘장성한상’은 35종 안팎의 풍성한 음식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고급 ‘한식뷔페’다. ‘한 끼의 밥상’, ‘정을 담은 장성한상’이라는 의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매장 규모는 총 1천20㎡로 한식뷔페존(zone), 과일카페존, 쿠키카페존, 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다. 한식뷔페존은 2인석 30테이블, 4인석 56테이블, 단체석 26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단체 예약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식재료’다. 음식에 쓰이는 대부분의 재료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약정 농가들이 공급한다. 이른아침 수확한 먹거리로 점심 요리를 만들어 신선함은 물론,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잔류농약검사와 농가 교육도 실시해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도 확보했다. 가족모임 등 특별한 날에 찾을 수 있도록 음식에도 차별화 신경 썼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해 염도를 조절하고, 좋은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장성한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흑임자치킨 등 특별 메뉴와 계절에 따라 마련되는 제철 메뉴도 기대를 모은다.

가격은 요일에 상관없이 성인 1만5천원, 학생 1만원, 미취학아동 6천원이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과일카페존에선 장성한 과일로 만든 주스와 커피, 음료, 간식 등을 판매한다. 차 한잔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쿠키카페존과 교육장은 농가 교육과 고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한다. 장성군은 오는 19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정식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이 건강한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정남진 장흥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내일 심천공원 축구장...700여명 참여

장흥군은 8일 “오는 10일 심천공원 축구장에서 ‘제4회 통일시작의 땅, 통일가원 정남진 장흥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전남 지역의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자리로, 장흥군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7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참가자들은 실력을 겨루며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노벨 문학도시 장흥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그라운드골프의 매력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일을 염원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 1만원 임대주택 신희부부 대상 신규 공급

첫 입주 이후 갱신 시점 도래

화순군은 8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 첫 갱신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 입주한 신희부부세대 중 2차녀 이상인 신희부부를 대상으로 24평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화순군의 강력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화순 1만원 임대주택은 지난 2023년 상반기(1차) 입주한 1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임대료는 월 1만원으로 유지되며,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갱신 대상자 중 일부는 입주 이후 결혼해 신희부부가 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희부부형’ 대상자로 전환된다.

다만, 지난 5월7-13일 7일간 갱신을 위한 입주 자격 요건 검토 과정에서 총 12명의 입주자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신희부부 9세대가 오는 7월 이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1호는 이번 1만원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2차녀인 신희부부 세대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이직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은 개별 안내와 함께, 재계약 불가 사유를 상세히 고지하고, 타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희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첫 삽

20일 기공식...복합 커뮤니티 조성

광양시는 8일 “오는 20일 광양읍 칠성리 131번지 일원에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권향업 국회의원, 김태권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양읍 칠성리에 건립될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연면적 3천958㎡에 달한다. 1층에는 카페와 공유 주방이,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시는 올해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마감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함께 문화·여가 거점 역할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시장은 “그동안 광양읍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했다”며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오랜 숙원 해결이자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 천주교세계청년대회 준비 첫 걸음

정해박해 200주년 성지순례길 걷기 성료

곡성군은 “최근 2027년 정해박해 200주년 및 천주교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해박해 성지순례길 걷기’ 행사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대교구 북부1지구 10개 성당의 사목회 임원 등 108명과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준비위원 TF팀 등이 참여했다.

정해박해 성지순례길 걷기 코스는 옥터 성지인 곡성성당에서 출발해 묘천리 다목적 복합센터-정해박해 진원지(오곡면 승법리)-동화정원-뚝방생태공원-가차마을 전통시장까지 총 6km 구간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성지순례 및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성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곡영민(오른쪽) 고흥군수가 최근 고흥군수협 오천 다시마위판장을 찾아 다시마의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마른 다시마 본격 출하

해풍에 자연건조...식감·감칠맛 ‘우수’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수협 오천 다시마위판장에서 ‘2025년산 마른 다시마 초매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이흥재 고흥군수협 조합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어업인의 안녕과 안전 조업을 기원하며 고흥산 마른 다시마의 첫 경매가 진행됐다. 고흥산 다시마는 햇빛과 해풍 등 자연조건 덕

분에 색이 짙고 품질이 우수해 국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식감과 감칠맛이 타 지역 제품보다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산 다시마의 품질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해조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흥군의 마른 다시마 위판 실적은 522.4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500억 규모의 생산이 예상된다. /박현진 기자